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주일
제31권 8호(가례) 2011.1.16

[묵상]



이 세상에 오신 하느님은 어떤 모습일까,
그 분을 알아보는 표징은 무엇일까,
구세주는 어떤 일을 하실까 궁금하다.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셨고
성가정 안에서 성장하셨던 예수님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구세주로서 모습을 드디어 드러내시니
그 분은 성령이 머무시는 분,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심이
하늘의 표징을 통해 드러나시네.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던 요한은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하느님께 바쳐질 희생제물이라 하시네.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도 기대하는
힘 있는 슈퍼스타 구세주가 아니라
속죄물로 바쳐질 어린양이라니.
자기 살길만을 쟁기는 이 시대에
자기만을 향해 당기는 모든 힘을
남을 향한 단 한 분의 사랑으로 버티니
이보다 위대한 대속물이 어디에 있으랴!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일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에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에 전신자 성경통독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전 9: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성령기도회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8: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에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 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 빈첸시오회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2:30 오전 9: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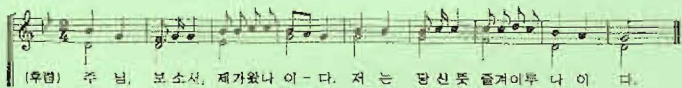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이재정 사도 요한 (562)403-734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김순선 아녜스, 김인영 베드로
특전미사	(생) 이호준 프란체스카, 이준영 마르코 & 이정수 헬레나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 이태석 요한 사제, 윤계림 마리아, 박수권 스테파노,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엄은섭 도로테오, 박노한 도미니코, 이용관 요셉, 변세연 대건 안드레아, 박송희, 백남호, 윤희중
	(생) 이덕철 루카, 김상규 니콜라오 & 김성인 카타리나, 유명련 마리아, 민식준 토마스 & 민영준 마르코, 오세천 베드로 & 도미니카 가정, 김영숙 글라라 & 도밍고 가정, P.V. 구역가정들, 이윤조 글라라, 이덕순 이사벨, 이호준 프란체스카, 남인구 야고보 & 정선 안젤라, 구마리아네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49,3.5-6

화답송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후렴) 주님, 보소서, 제가 왔나 이-다.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 나 이 다.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그분은 나에게 몸을 숙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제 2독서 코린토 1서(Corinthians) 1,1-3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네.○

복음 요한(John) 1,29-34

영성체송 주님이 제게 상을 차려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목마른 사슴	187	197
봉헌	Breathe	257	312
성체	249	279	292,308
파전	내가 살아가는 이유	240	181

3. 살인하지 못한다 - 하느님의 신성한 법 -

▶국법과 도덕률

물론 모든 인간의 존엄성이나, 불가침적이고 훼손할 수 없는 인권의 존중, 그리고 정치생활을 통제하는 목적과 기준으로 채택되는 "공동선" 등과 같은 가치는 틀림없이 기본적인 것이고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들의 토대는 "과반수"의 의견으로 변경할 수 있는 임시적이고 변경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직 인간의 마음속에 "자연법"으로 새겨져 있는 객관적인 도덕률의 승인만이 국법 자체의 의무적인 기준점이다. 만일 집단적인 양심이 모호해지는 비극적인 결과로 도덕률의 기본적인 원칙들까지 문제로 삼는 데 성공하게 된다면,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기초조차 위험이 빠지게 될 것이며, 민주주의 체제는 순수한 경험주의적 토대 위에서 상이하고 대립되는 이익들을 통제하는 단순한 장치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어떤 이들은, 더 나은 다른 것이 없다면 이러한 기능조차도 사회의 평화를 위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반면에 누구든 이러한 견해가 진리의 요소들을 지니고 있다고 인정하지만, 객관적인 토대 없이는 민주주의조차도 안정된 평화를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다. 모든 개인들의 존엄성이라는 가치와, 모든 사람들 간의 연대성 위에 이룩되지 않은 평화는 대개 환상으로 드러나고 말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 통치에 대한 참여 체제를 안에서조차, 흔히 가장 힘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권 조종이 이루어진다.

그들은 권력의 조종간을 쥐고 있을 뿐 아니라, 합의를 형성해 내는 과정을 조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는 쉽게 공허한 말이 되어버린다.

71). 그러므로 사회의 장래와 건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본질적이고 고유한 인간적, 도덕적 가치들을 되찾는 것이 시급하다. 이 가치들은 인간 존재의 진리에서 흘러나오며, 인격의 존엄성을 표현하고 보호한다. 이 가치들은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다수의 것도 아니며, 국가가 만들어 내거나 변경하거나 파괴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인정하고 존중하고 증진해야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법과 도덕률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의 기초적인 요소들을 되찾아야만 한다. 이것은 교회가 추진하는 일이지만, 인류의 위대한 법적 전통 유산의 한 부분이기도 하다.

국법이 지닌 목적의 범위가 도덕률과는 다르고 더 제한적이라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삶의 어느 영역에서도, 국법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넘는 일들에 대해서 양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거나, 규범들을 강요할 수 없다.국법의 능력 범위란 국민들의 기초적인 권리들을 인정하고 보호하며, 평화와 공동도덕을 증진시킴으로써 공동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계속)

“세상의 죄”

가끔 고백소 안에 들어오신 할머니가 이렇게 고백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예구, 신부님, 사는 게 죄지유.” 이러시면 참 난감합니다. “그럼, 살지 마시유.” 그럴 수도 없고... 그런데 오늘은 할머니의 그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보게 됩니다. 살면서 나도 모르게 짓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자판기 주위에서 커피를 마시며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며 불쌍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모릅니다. 근래 남미 아마존강 유역의 나무들이 너무 많이 벌목되어 그곳에 구름이 생성되지 않아 아프리카에 비가 안 오고 사막화가 진행되어 농토가 줄어든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주리게 된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자판기 종이컵의 원료가 바로 그 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아침 출근 막대한 길, 승용차 속에서 방글라데시에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접하곤 ‘왜 그 가난한 나라는 늘 불행한 일만 닥치는 거지?’ 하며 동정의 마음을 갖습니다.

바로 그 시간 내 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여 빙산이 녹고 해수면이 올라가 저지대인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들에 홍수가 발생하는 것인데 말입니다. 또한 음식 쓰레기를 그렇게 많이 버리면서 식수 오염을 걱정하고, 살 빼기 위해 러닝머신을 뛰면서 북한의 탈북난민들이 시장바닥 음식쓰레기를 주워 먹는 텔레비전 장면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써버린 종이컵이, 내 승용차가 내뿜는 배기가스가, 내가 버리는 음식쓰레기가, 나의 과실이 세상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라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우리의 무감각, 무관심, 편의주의가 만들어 내는, 나도 모르는 죄가 바로 ‘세상의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의 죄도 아니고 너의 죄도 아니라고 생각되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지만 분명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그런 죄 말입니다. 그 죄를 없애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이기심과 무관심이 자라고 퍼져 나가면 엄청난 파괴의 힘으로 힘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죄의 파도를 막기 위해 죄 없으신 몸으로 홀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희생의 길이 세상의 죄를 없애는 길임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십자가 희생의 길이 돌 같은 이기심과 무관심으로부터 살 같은 양심을 일깨우는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차례입니다. 이 시대는 가히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이고 기회 불균등의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지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의 길을 가야합니다. 이 시대 우리의 죄는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먹은 죄가 아닐까요?

◆고찬근 루카 신부 / 서울대교구 성소국장

이번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최진수 에우세비오
제1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권오상 바오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권순길 체칠리아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1반

다음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호미 엘리사벳	박희자 마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이민상 사도요한	이상철 크리스토퍼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순자 비비안나	이희경 크리스티나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 1반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주례

"주님께는 찬미를, 이웃에게는 사랑을, 살천하는 믿음 속에 성장하는 백삼위"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주님 봉헌 축일 ... 초 봉헌 및 축성

오는 2월2일(수)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한 해 동안 제대에 사용할 초와 가정에서 쓰실 초를 봉헌 받습니다.

- 초값 : 제대초 \$20, 개인초 \$15 (개당)
- 신청 : 1월26일(수)까지(사무실, 성물부 김막달레나)
- 봉헌미사 : 2월2일(수) 오후 7시30분

◆ 본당 30주년 기념 묵주기도 30만단 바치기

- 묵주기도 봉헌표 : 사무실
- 묵주기도 봉헌함 : 일주일에 한번씩 묵주기도 봉헌표를 제대앞 예수성심상 옆에 마련된 묵주기도 봉헌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설립 30주년 맞이 전 신자 친구약 통독 시작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아 1년 동안 전 신자 친구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성서 읽기에 맞추어 알기 쉬운 해설을 주간별로 해드립니다. 나눠드린 매일성경읽기표에 따라 꾸준히 성경을 읽어나갑시다. (이주간의 암송 성구 : 주보 5면 참조)

- 시간 : 매주 목요일 오전 10, 오후 8시, 강당
(같은 내용을 오전/오후 두번 공부합니다.)
- 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울뜨레아 기금모금 홈페이지 음식판매

- 일시 : 오늘(15일) 특전미사 후, 16일 주일미사 후
- 메뉴 : 가재미 식혜, 빈대떡, 오징어채무침, 무말랭이, 콩자반, 돼지족발, 호박죽 등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간사 ☎(310)749-0276

◆ 요셉회 신년 모임

- 일시 : 오늘 주일(16일) 낮미사 후, 강당
- 문의 : 권태만 실베스텔 회장 ☎(310)989-9077

◆ 전례분과 평가회

- 일시 : 1월23일(주일) 오후 4시, 강당(디너 제공)
- 문의 : 윤희동 안토니오 전례분과장 ☎(310)365-7871

◆ 견진성사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는 2월6일(주일) 성인 교우들을 대상으로 견진성사가 예정되어있습니다. 견진받기를 원하는 세례신자들은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시오.

- 성사일시 : 2011년 2월6일(주일) 낮미사 중
- 주례 : 오스카 솔리스 주교(LA대교구 San Pedro Region)
- 교육 일정 : 1월28일(금) 오후 8시, 29일(토) 오후 8시, 2월5일(토) 오후 8시 리허설
- 신청마감 : 1월23일(주일)
- 문의 : 종교교육분과장 최재은 베드로 ☎(310)694-4585

◆ 전신자 모두 예비자를 봉헌합니다

본당 설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전신자 모두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하는 기간을 갖습니다. 교리와 세례식 일정은 추후 발표합니다.

- 첫환영식 : 2011년 2월27일(주일) 낮미사 후
- 장소 : 강당
- 문의 : 복음화분과장 김충섭 마틴 ☎(213)820-7636

◆ 배론 청년회 스키 트립 & 회원 모집

- 스키트립 일시 및 장소 : 1월21일(금)~23일(주일)
- 장소 : 빅배어,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청년회 모임 시간/장소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 성당 강당
- * 문의 : 이상용 엘리야 청년회장 ☎(310)650-6057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월16일(주일) : 울뜨레아(배주국 \$전신자에 무료제공)
- 1월23일(주일) : P.V. 2반(육개장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권태만	김교복	김기정	정웅	김대우	김영정	김옥보	성전헌금	권태만	김교복	김기정	정웅	김대우	김옥보	김원호
	김옥찬	김원호	김정훈	김정희	김민석	김종철	김주량		김정희	김주량	김형순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김형순	노혜숙	문충한	민기남	민소예	박상준	민소예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배기엽	석순영		
	박씨니	박인식	방정복	배기엽	석순영	송기철	원건희		유영균	이정용	이병찬	이영숙	이영희		
	원건희	유영균	윤석구	이정용	이병찬	이영숙	이은록		이효세	임 순	장정진	정규숙	정지숙		
	이영희	이은록	이효세	임 순	장정진	정규숙	정훈모		주대중	최의수	최재은	한연만	한창주		
	정지숙	정훈모	조소영	주대중	최금옥	최의수									
합계 : \$3,750							합계 : \$2,380								
미사헌금 : \$3,021.50							감사헌금 : 김소연								

감사헌금 : 김소연

공지사항

- ◆ 오늘 주일학교 / 한국학교 휴강(마틴 루터 킹 Jr. 기념 연휴)
- ◆ SAT II 한국어 시험 준비반 모집
 - 대상 : 2011년 11월 첫째주(토)에 예정된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9학년 이상)
 - 모집기간 : 1월30일까지(5명 이하인 경우 취소됩니다.)
 - 신청 : 백삼위 한국학교 교사실
 - 문의 : 이헬레나 교장 ☎(310)422-0066
 - 한국학교 2학기 등록 받습니다.

남가주 소식

- ◆ 젊은이를 위한 프란치스칸 영성 피정
 - 주제 : 예수님을 찾아서(Finding Jesus)
 - 일시 : 2월4일(금)~6일(주일)
 - 장소 : 말리부 Serra 피정센터
 - 대상 : 20~30대 기혼/미혼
 - 지도 : Joe Kim 신부님
 - 신청마감 : 1월31일(월), 피정비 \$210
 - 문의 : MGMA(My God My All) 청년 재속프란치스칸회 Max Choi ☎(714)553-4432

◆ 전신자 신구약 통독 셋째주간 암송 성구 ◆

- 1월17일(월)
아버지, 이 잔이 비켜 갈 수 없는 것이라서 제가 마셔야 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26,42).
- 1월18일(화) 마르코 복음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바로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3,35).
- 1월19일(수)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6,50).
- 1월 20일(목)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8,33).
- 1월 21일(금)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10,43).
- 1월 22일(토)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13,32).
- 1월 23일(일) 이사야
오너라, 우리 시비를 가려보자. 너희의 죄가 진홍빛 같아도 눈같이 희어지고 다홍같이 붉어도 양털같이 되리라(1,18)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다음 주 단체 모임

2011년 1월 사목회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차 장 차 장		김씨니 클라라 박희자 마리아 이정수 헬레나	(310)612-8840 (310)325-6982 (310)972-9193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변해경 올리아나 920-5153	유현자 안나 1/7(금) 오후 7시 483-5476
	2	한창주 요아킴 530-7702	한창주 요아킴 1/8(토) 오후 7시 530-7702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1/14(금) 오후 8시 성당 854-9407
	4	정종미 클라라 377-4749	정종미 클라라 377-4749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박동수 베드로 1/14(금) 오후 7시 218-7340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윤바오로 1/8(토) 오후 6시 316-7819
	3	권영옥 루시아 720-2876	김미성 에스텔 1/10(월) 오전 10시30분 720-2876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박희자 마리아 325-6982	1	이명자 마가렛 433-9075	이인석 비오 1/21(금) 오후 7시30분 433-9075
	2	이정수 헬레나 972-9193	이정수 헬레나 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972-9193
	3	안희경 크리스티나 750-4051	이재용 안드레아 1/8(토) 오후 6시 750-4051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2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김병태 요셉 1/14(금) 오후 7시 327-1658
	3	대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윤남열 세라피나 365-9750	1/2	박해경 레나타 808-5005	김윤진 카타리나 1/14(금) 오후 7시30분 성당 997-554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이용무 스테파노 1/14(금) 오후 7시 377-9989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금영도 베드로 1/14(금) 오후 7시 541-4706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한애경 올리아나 1/14(금) 오후 7시 541-5370
	4	강숙경 도미니카 541-0767	이영숙 수산나 1/11(화) 오전 10시30분 544-5078

연중 시기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경축하는 시기

한 해는 우리 삶의 여정에서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1년 동안 사계절의 변화가 계속되듯, 우리는 1년을 주기로 새롭게 삶을 시작하고 밋기를 반복해 나간다. 교회는 이러한 주기적 시간의 흐름에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룩하신 구원 업적을 담아 이를 기념하며 경축한다. 이를 '전례주년'이라 한다. 교회는 전례 주년을 통해 "강생과 성탄에서부터 승천, 성령강림까지, 또 복된 희망을 품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까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친다." (전례현장 102항)

전례 주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대축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다. 이 전례 주년을 이끄는 가장 중요한 대축일은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다. 이 두 대축일을 기점으로 대림 시기, 성탄 시기, 사순 시기, 부활 시기가 배치되어 있다. 고유한 특성을 지닌 이 네 시기 외에, 1년에 33주간 또는 34주간이 남는데, 이 시기가 '연중 시기'이다.

교회력으로 볼 때 새로운 전례 주년의 시작은 대림 시기부터이다. 그래서 연중 시기는 성탄시기가 끝나는 공현 후 마지막 날인 '주님 세례 축일' 다음 날부터 '연중 제1 주간'이 시작된다. 그러다가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부터 부활 시기까지 연중 시기가 중단되었다가, 부활 시기가 끝나는 성령 강림 대축일 다음 날부터 다시 이어져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연중 시기는 끝이 난다.

연중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직접 관련된 다른 시기처럼 특정 의미를 지니지는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면서 하느님과 만남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님의 공생활과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경축한다. 연중 시기에 다양한 축일을 많이 지내는데, 특히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도 이 시기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연중시기 동안 사제는 생명의 기쁨과 희망을 나타내는 '녹색 제의'를 입는다.

<◆참고 : 매일미사>

신년 시

보고 싶다는 말은

이해인

생전 처음 듣는 말처럼
오늘은 이 말이 새롭다
보고 싶은데.....
비 오는 날의 첼로 소리 같기도 하고
맑은 날의 피아노 소리 같기도 한
너의 목소리 들을 때마다
노래가 되는 말
평생을 들어도 가슴이 뛰는 말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감칠맛 나는
네 말 속에 들어 있는
평범하지만 깊이깊은 그리움의 바다
보고 싶은데...
나에게도 푸른 파도 밀려오고
내 마음에도 다시 새가 날고...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은 몹시도 춥고 어두운 날...
온 몸이 아프고 아무것도 하기 싫으며
죽도록 무서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분이 마음 속에 오심을 기억하며
하루를 행복으로 느끼며 살아가세요.
힘겨울때 항상 그 분이제심을
깨닫고 사십시오, 항상 자신의 일이
깨대로 되지 않는다고 투정부리지 말고
자신이 잘못된 일을 타인에게
전가시키려 하지 말며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순응하여
차분하게 그 분의 길을 닦아
그 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날!!!
바로 오늘입니다.

◆자료 : 가톨릭인터넷 굿뉴스